

‘주가 반토막’... 주총 앞둔 네카오, 인적쇄신·신사업 ‘중점’

네이버, 올해 개장 첫날 18만원대 국내외 금융 전문가 사외이사 선임 카카오, 정신아 신임 대표 공식 선임 핵심 계열사 CEO 대거 교체 검토

NAVER **kakao**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3월 말 나란히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연다. 두 회사 모두 이번 주총에서는 인적쇄신과 신사업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뒷걸음치고 있다. 카카오는 각종 내용 사태로 핵심 계열사 수장들을 바꿔 경영 쇠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총은 각각 오는 26일과 28일에 열린다.

네이버는 성남시 분당구 제2사옥에서 열리는 제25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금융투자 전문가 두 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특히 네이버는 최대 실적을 경신했음에도 최근 주가 부양책에는 실패하며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주가는 올해 들어 15.97% 빠졌다. 올해 개장 첫날(1월 2일 기준) 22만원 대던 주가는 18만원 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는 네이버의 실적과 반대되는 행보다, 네이버는 지난해 첫 9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최대 매출을 경신했지만 주가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

이에 네이버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주가 부양책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사 후보자는 변재상 전 미래에셋생명 대표와 이사무엘 인다우어스 공동창업자이다. 네이버 이사회는 두 후보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네이버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변재상 후보자는 2005년 5년 미래에셋증권 채권본부장을 시작으로 경영서비스부문 대표 등을 거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래에셋증권 대표를 역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를 지

냈다.

이사무엘 인다우어스 창업자는 모건스탠리 자산운용에서 15년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투자 대표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인다우어스는 아시아 최대의 개인 디지털 투자 플랫폼으로 약 50억달러(약 6조 7000억원) 규모의 고객 자금을 유치한 회사다.

이번 주총에서 두 명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면 네이버의 이사회는 총 7명 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사내이사 2명(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정책대표), 기타비상무이사 1명(변대규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4명 등이다.

두 후보자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네이버는 미국 법인 웹툰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선정했다.

네이버 이사회는 “두 후보자 모두 자산 운용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경영과 관련 사업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대표이사 역임 시절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이룬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주총의 최대 화두는 정신아 신임 대표 공식 선임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내정한 데 이어 주총 시점에 맞춰 핵심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중 대거 교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 신임 대표는 1975년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이베이 APAC HQ 전략매니저, NHN 수석부장을 거쳐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 카카오벤처스 대표, 2019년 카카오 기타비상무이사, 지난해 9월 CA협의체 사업부문 총괄을 맡았다.

현재 김범수 창업자와 함께 카카오 새 신 중추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정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 조직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할 신사업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관련 논란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 문어발 확장 비판 등으로 각종 내용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카카오의 내부 조직 개편은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그룹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핵심 계열사의 CEO 교체 작업을 연이어 단행했다. 이승호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혀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도 불발될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최고 수위 제재안이 담긴 사전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류금선 대표 해임 권고는 물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과징금 90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카카오 VX 문태식 대표와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는 내달 임기가 만료되나, 연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직원 간담회에서 “새로운 배,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겠다”며 경영쇄신을 강조한 데 이어 정 대표 내정자도 공동체경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속에 (쇄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에코프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1.2조 투입

올 포항캠퍼스 중심 투자 단행

에코프로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전구체 및 수산화리튬 제조, 양극재 생산까지 이차 전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에코프로는 올해 포항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에만 약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에코프로는 전구체 공장 증설에 69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양극재와 수산화리튬 공장 증설에 각각 3200억원, 1600억원, 산업용가스 생산에 1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총 1조 18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에코프로이엠의 하이니켈 양극재(NCA) 생산공장 CAM8, 에코프

로이노베이션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LHM2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CPM 및 RMP 3, 4 공장을 각각 건설한다. CPM은 전구체 공장이며 RMP는 전구체 공정 전단계인 황산화 공정이다. 니켈 코발트 망간 원료를 수입해 황산화 공정을 거쳐 전구체가 완성된다.

포항 4캠퍼스 구축이 완료되면 포항캠퍼스는 양극재 27만톤, 전구체 11만톤, 수산화리튬 2만6000톤을 생산하는 대규모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발돋움한다.

에코프로가 지난 2020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포항캠퍼스는 총 4개 사이트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 투자금액을 포함해 포항캠퍼스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은 5조 5000억원에 이른다.

/차현정 기자

LG엔솔, 첨단 BMS 솔루션 개발 추진

퀵검과 특정 기능 결합으로 고도화

LG에너지솔루션과 퀵검 테크놀러지가 첨단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진단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퀵검과 협력해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MS 진단 솔루션은 고객사 및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배터리 사용 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 관계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BMS 진단 소프트웨어와 퀵검 스냅드래곤 디지털 새시(TM)의 특정 기능 결합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첨단 BMS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될 BMS 진단 솔루션은 저 사양 하드웨어로 구동됐던 기존 BMS 소프트웨어와 달리 차량 내 고성능 스냅드래곤 디지털 새시 플랫폼의 SoC(System-on-Chip)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산능력을 80배 이상 향상시켜 더욱 정교한 배터리 알고리즘



LG에너지솔루션과 퀵검 테크놀러지가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왼쪽부터) 정형성 LG에너지솔루션 사업개발 총괄 상무, 박지성 퀵검 CDMA 테크놀러지 코리아 마케팅 부문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고, 첨단 BMS 기능도 서버와 통신 없이 구현이 가능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실시간 배터리 상태 진단은 물론, 차량의 주행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이 가능해져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U+,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서 3관왕

U+tv 넥스트·포동·스튜디오 X+U UI·서비스 디자인·커뮤니케이션 수상

LG유플러스는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iF 디자인 어워드 2024’ 3개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다. 올해는 72개 국가에서 약 1만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디자인 차별성, 시각적 요소, 영향력 등 종합적 심사를 거쳐 총 3767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어워드에서 IP



이번에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U+tv Next’, ‘포동’, ‘STUDIO X+U’ 디자인. /LGU+

TV 서비스 ‘U+tv 넥스트’와 팻커뮤니티 ‘포동’,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 X+U’가 고객 중심의 디자인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각각 UI(사용자 환경) 부문, 서비스 디자인 부문, 커뮤니

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먼저 UI 부문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본상을 수상한 U+tv 넥스트는 VOD, OTT, 실시간 콘텐츠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탐색하고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깔끔한 블랙 테마 디자인과 함께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한다. 메뉴에서 포커스를 옮길 때마다 다양한 효과를 적용, 콘텐츠 탐색 과정에서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모바일 앱’으로 본상을 수상한 포동은 보호자와 반려견의 교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팻커뮤니티다. 현재 40만 반려인이 이용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편안한 실내환경에 럭셔리를 더하다”

KGM, 렉스턴 써밋 출시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서울모빌리티쇼서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의 양산모델을 ‘렉스턴 Summit(써밋)’으로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렉스턴 써밋은 2열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최상급 편의사양을 완비한 프리미엄 SUV로 ▲편안한 실내 환경 제공 ▲운·오프로드 주행 성능 확대 및 승차감 향상 ▲안전성 등을 강화했다고 회사측

은 설명했다.

렉스턴 써밋의 가장 큰 변화는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의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으며, 2열 양면형 센터콘솔은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